

전북도, 소방안전 인프라 획기적 개선

노후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사업 추진... 2027년까지 2998억 투입·소방청사 17개소 이전 등 출동체계 정비 추진

김관영 도지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소방안전 인프라 재정비 등 도민을 위한 소방행정 펼쳐나갈 것”

전북도가 노후된 소방청사의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균등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27년까지 총 사업비 2998억원을 투입해 도내 노후 소방청사 17개소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은 도내 소방청사 100개소 중 20년 이상 경

과된 소방청사 42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도, 협소도, 출동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향후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소방청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신축 및 이전이 시급한 17개 소방청사를 선정하고 매년 3~4개소씩 평균 60억(도비, 소방안전교부세)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선정은 4월부터 건축사, 기술사 등의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현장실사단을 구성해 건축물의 안전성, 노후도, 출동여건 등을 평가했으며, 지난 7월 말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이 확정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 “민선 8기 전북 도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활동 및 신속

한 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소방안전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등 도민을 위한 소방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대상에 선정된 17개소 중 15개소가 면단위 농촌지역 소방청사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농촌지역 소방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2022 국가안전대진단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도·14개 시군 참석... 도로관리사업소·익산·원주 준비상황 발표

조봉업 행정부지사 “도민 안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점검” 당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회의에는 도 21개 주관부서, 14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민관합동점검반, 과학기술대비 확보 현황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터널·교량 시설물 중 노후화 시설 위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과 민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시민, 민간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 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누리집 및 음·면·등을 통해 주민 신청제를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 협회 및 단체, 가정 등에 점검표를 배부하는 자율점검 실천 운동도 전개한다. 앞주군은 점검에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또한 민간단체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주민신청제 등 홍보도 병행해 내실 있는 점검을 추구한다. 준비상황 발표 후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은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노후·위험시설 등 1,484개소에 대해 점검하게 되며, 점검은 모든 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주민신청제를 도입하여 7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역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신청을 받아 대진단 기간에 점검한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김경수 기자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도민이 참여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위험한 곳은 바로 정비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점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쇼핑 Day’ 개최

12~13일, 전주 객리2길 일대서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진행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 하는 아트마켓·무료 체험 등

전북도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객리2길(구) 옥토주차장 인근에서 ‘2022 쇼핑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쇼핑 Day’를 개최한다. 재단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2 쇼핑관광 활성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2025년까지 4년간 동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쇼핑 Day’는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원도심 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장으로 지역 아티스트들의 콘텐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전북 쇼핑관광 브랜드를 확산시키고자 기획했다. 행사는 주요 행사와 부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주요행사로 40개 내외의 로컬 크리에이터 아트마켓과 무료 체험 프로그램(가족공예 체험, 아크릴 물감

활용 에코백 만들기 등), 부대행사로 다양한 장르의 지역 청년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이 있다. 또한 참여자들을 위한 플래이존과 휴식 쉼터도 운영한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전주 원도심 지역에서 지불한 2만 원 이상 영수증 지참 시, 선착순 300명에게 전주 가막축제(11~13일)에서 사용 가능한 3,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영수증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주 고사동 원도심 일원(14만 2,285㎡)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2022 쇼핑 관광 활성화’ 사업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관광진흥본부 김현 본부장은 “전국 광역관광전담기구(RTO) 최초로 추진되는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한옥마을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로 지역관광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도, 녹색자금지원사업공모 적극 대응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숲과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추진하는 ‘2023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사업 분야는 복지시설 나눔숲(실외) 및 무장애나눔길, 무장애도시숲 조성 등 3개 분야, 총 사업비 178억원 규모로 신청을 받아 군산시 등 9개 시군에서 14건이 접수됐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산림기술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도 평가단이 사업별 계획, 예산 등 검토를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심도 있게 검토해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숲과 쉼터 조성 및 교통약자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숲길 조성으로 산림체험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기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동화 낭독극 진행

‘마당을 나온 암탉’·‘으랏차차 조선실록 수호대’ 등 무료관람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름방학을 위해 오는 8월 11~12일 오후 3시 창의체험관 공연장에서 전주시립극단과 협력한 동화낭독극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아동문학상 수상 도서인 ‘마당을 나온 암탉’과 ‘으랏차차 조선실록 수호대’가 어린이들의 문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전주시립극단의 실감 나는 동화낭독을 통해

진행된다. 동화낭독극은 체험관 내 공연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체험관 누리집(https://jtxchild.kr/) 상상문화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실감나는 낭독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의 문학적 상상력이 증진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여름 휴가철 주요 관광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시단속 실시

불법주차 10만원·주차방해 50만원·주차표지 불법사용 200만원 과태료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라북도편의시설도민추진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등 주변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영주차장, 대형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했던 단속이 아닌 주요 관광지 등의 수시 단속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민원해결이 목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 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이종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으로 위반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군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건수는 2020년 1만2,903건, 2021년 1만 2,222건, 2022년 6월 기준 4,08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안전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약자 약자를 위해 지

정한 곳으로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고, 도민 개개인의 관심과 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 주차가 사라지고 이용시설에 대한 미비 사항이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2학기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긴장해소·면접스피치·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역임
- 전주대인적개발
- 한국스피치·공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의대학원 및 기관, 단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나눔, MBC TV, JTV, LB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전문 매거진 <스피치> 편집위원
- 저서 <65세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나쁜 배우, 빛, 빛>,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음, 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계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문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인공지능학회 전주위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